목포시의회 초선 의원들 '시민밀착 의정' 주목

고경욱·정재훈·최원석 의원, 생활 개선 조례안 등 발의
임성지구 개발사업 관련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도

고경욱

정재훈

최원석

목포시의회 초선 의원들이 시민 밀착형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고 도시 개발사업 관련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맹활약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고경욱 의원(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의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조항 신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기준 등이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정비됐다"며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더욱 쾌적하게 이용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은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최종 의결됐다.

스포츠 마케팅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 관광도시로써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반려동물 관련 조례안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포획·방사 등 관련 사업의 범위를 넓혀 해당 민원에 대응하고 관내 길고양이 개체수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목포시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명품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문화한 만큼 전국 스포츠팀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 오랜 기간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보람된다. 앞으로도 시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의원(삼향·옥암·상동)은 지난 2008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돼 16년간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임성지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조속한 사업 추진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송곳 시정 질문을 펼쳤다.

특히 사업비가 지난 2012년 주민공청회 당시 1천804억원이었으나 2019년 4천282억원으로 137% 상승했고 현재는 5년이 더 지난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목포시가 임성지구 개발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주민 의견 청취, 사업진행 과정 신속 공개 의무화 ▲파격적인 원주민 이주 대책 및 재산권 보호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임성지구 보상 기준은 전면 환지 방식이어서 사업비가 예상보다 높아지면 보상 토지 면적이 줄어들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목포시의 적극·책임·소통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남부경제권 구축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이뤄야"

광주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최
SOC 확충·산업융합 협력 등 강조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수도권과 대등한 규모의 '남부경제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연구원은 한국경제통상학회와 함께 지난 26일 오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남부경제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 자리에서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신모델 남부경제권 구축 전략-Big Horizon 2050'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남부경제권 개념과 구축방향, 협력 전략과제,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세계 유수의 도시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 중심의 도시 간 네트워크형 메가 리전(mega-region)을 구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지역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부경제권 구축으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원장은 "남부경제권 구축을 위해 교통·SOC 신속 확충 및 글로벌 접근성 강화, 산업융합과 전환 협력으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로컬 관광의 다양화 및 고급화, 인재 성장과 일자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부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오재환 부산연구원 부원장, 성웅경 대구정책연구원 부원장, 조창완 전남연구원 부원장, 김보국 전북연구원 본부장, 동진우 경남연구원 실장, 나중규 경북연구원 본부장,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 정성배 조선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부경제권 구축 전략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재필 한국경제통상학회장은 "지방은 소멸위기를 걱정하는 동안 수도권은 인구과밀화 문제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고민하고 있다"며 "인구 1천800만의 남부경제권을 조성해 미래에도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전남농기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7일 "올해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 등으로 병해충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찰단은 병해충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가 아니라 정밀 예찰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농업기술 분야별 전문가,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3개 반 87명으로 구성됐다

예찰단원과 농업기술원장, 함평 부군수,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함평에서 '병해충 예찰단 발대식'을 갖고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박용철 전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병해충 사전 예방 대책 강화 등 주요 작물의 안정생산과 물가 안정을 위한 기술 지원에 주력해 농산물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김진호 조선대병원장 광주전남병원협회장 선출

김진호(사진 앞줄 왼쪽서 세 번째) 조선대병원장이 광주전남병원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27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광주전남병원회는 지난 25일 조선대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 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 병원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했다.

광주·전남병원회는 광주·전남 370여개 병원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김진호 신임 회장은 "막중한 시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역대 회장들의 노력을 잘 계승해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이광래 농어촌公 상임감사, 보성 안심지구 배수개선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는 27일 "전날 이광래 상임감사가 보성군 득량면에 위치한 안심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22-2027년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배수장 1개소, 매립 12.9ha, 배수로 1-3호 1.4㎞ 정비를 통해 수혜면적 192.3ha의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농가소득 증진이 목표다.

이광래 상임감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침수피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 관리를 최우선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전남도청서 중증장애인 도예작가 '도자 전시회'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도예 작가의 작품을 홍보하기 위한 도자 전시회 '안녕? 우리의 봄'이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29일까지 진행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 나광국 전남도의원,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자 전시회 '안녕? 우리의 봄' 개막식이 열렸다.

무안자립원과 목포장애인요양원이 주최하고 전남도가 후원한 이번 전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문화교류의 장이다. 개막식에서는 토분 전시 및 판매 부스 운영, 토분 활용 원예 1일 체험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전시는 남다른 끈기와 노력 끝에 탄생한 멋진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작가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에 감동과 위로를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남도는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전남 행복 시책을 더욱 힘껏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무안자립원과 목포장애인요양원 등 장애인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남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양시원 기자

정신 전남대병원장, 병원·의대 후원금 기탁

정신(사진 가운데) 전남대학교병원장이 병원 및 전남대 의대 발전후원금으로 3천360만원을 기탁했다.

27일 전남대병원에 다르면 정 병원장은 최근 새 병원 건립에 써달라며 1천만원을 전남대병원에 전달한 데 이어 대학 의과대학에도 발전기금 2천360만원을 기부했다. 정 병원장은 이번 기탁으로 전남대 의대에 총 1억원을 후원했다.

정 병원장은 "전남의대가 힘든 시기인 만큼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전남대병원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 병원 건립이 필수적이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장흥경찰, 긴급구조대응 기관장 간담회

장흥경찰서는 "최근 '2024 긴급구조대응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장흥소방서, 장흥보건소, 한전 장흥지사, 농어촌공사 장흥지사, 수자원공사 서남권지사, 장흥종합병원, 장흥우리병원 등 8개 긴급구조대응 기관장이 참여했으며, 장흥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참여·정성치안을 설명하고 민관 합동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행희 장흥경찰서장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나주경찰, 치안종합성과 보고회

나주경찰서는 27일 "전날 2024년 치안종합성과 향상 방안 1차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장진영 서장, 각 과·계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치안종합성과 결과를 토대로 각 기능별 우수사례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은 "주민 눈높이에 맞춘 치안활동으로 만족도와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담양 중앙파출소, 공동체 치안 자문단 간담회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는 "최근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자문단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치안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성택 중앙파출소장은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부음

▲정세민씨 별세, 박창민(KIA 타이거즈 트레이닝 총괄 코치)씨 모친상=발인 29일(금) 오전 10시30분 순천향대부천병원 장례식장(032-327-3060).